



## 미국/유럽

### □ 미국/유럽 유력 일간지들의 IT 관련 주요 주간 뉴스 목록

#### < 최근 1주간 미국/유럽 유력 일간지들의 IT 관련 주요 뉴스 목록 >

계제일자	출처	기사 헤드라인 및 요약
4월 11일	<b>Forbes</b>	<b>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: NXP의 무선통신 반도체 부문 인수해 별도의 합작법인 설립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무선통신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(이하 ST마이크로)와 4위 업체인 NXP는 4월 10일 퀄컴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경쟁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정</li> <li>▶ ST마이크로는 NXP 무선통신 반도체 사업 부문의 80% 지분을 15억 5,000만 달러에 인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나머지 20% 지분도 인수하여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</li> <li>▶ 합작 법인은 퀄컴(22%), 텍사스(18%)에 이은 메이저 3위 업체(14%)로 성장할 전망</li> </ul>
		<b>구글 &amp; 세일즈포스닷컴 :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해 연합 전선을 형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구글과 세일즈포스닷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기 위해 14일 구글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세일즈포스닷컴의 CRM 소프트웨어를 상호 통합하기로 발표</li> <li>▶ 세일즈포스닷컴을 통해 제공되는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, 예를 들어 자사 고객의 매출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e-mail을 발송할 수 있는 등 기업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</li> </ul>
		<b>검색 엔진 사용자의 68%가 검색 결과 첫 페이지 내 결과를 클릭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iProspec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,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68%가 검색 결과 첫 페이지 내 결과를 클릭하고 있으며, 92%가 3번째 페이지 내에서 결과를 클릭</li> </ul>
4월 15일	<b>BBC</b>	<b>노키아 : 4G LTE 무선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에릭슨, NEC, 알카텔-루슨트와 협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노키아는 LTE의 초기 시장 확산을 위해 에릭슨, NEC, 알카텔-루슨트, NextWave, 노키아지멘스, 소니에릭슨 등의 업체들과 함께 LTE 특허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를 결성</li> <li>▶ 이는 인텔의 모바일 와이맥스 진영과의 4G 표준 경쟁에서 더 많은 우호 세력을 확보해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됨</li> </ul>
	<b>PCWorld</b>	<b>퀄컴 : 노키아 LTE 라이선싱 프레임워크에 불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노키아의 LTE 라이선싱 프레임워크에 노키아와 더불어 세계에서 4G IP(지적자산)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퀄컴이 불참해 주목</li> <li>▶ 퀄컴은 CDMA 진화 기술인 UMB(Ultra Mobile Broadband)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GSM 진화 기술인 LTE 라이선싱 프레임워크에 불참한 것으로 분석됨</li> </ul>
	<b>Forbes</b>	<b>시게이트 : SSD 신생 업체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 청구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방대한 스토리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게이트는 SSD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, 우선 첫번째로 SSD 신생 업체인 STEC을 대상으로 스토리지 특허 침해 소송을 청구</li> <li>▶ 이번 소송의 의미는 스토리지 원천 특허를 무기로 HDD 대체 기술로 부상하는 SSD 공세에 대응하면서, 다른 메이저 업체들과의 특허 협상 선례로 만들기 위함으로 풀이됨</li> </ul>
4월 16일	<b>The New York Times</b>	<b>경기 침체가 미국 PC 시장 성장을 끌어내려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장조사회사 IDC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1분기 미국 PC 시장이 전년 동기대비 3.5% 성장하는데 그쳤으나, 세계 시장은 14.6%의 두 자리수 성장을 지속했다고 발표</li> <li>▶ 세계 시장에서는 여전히 HP가 선두를 지켰고, 게이트웨이를 인수한 에이서와 애플의 PC 시장 점유율 상승이 돋보인다고 분석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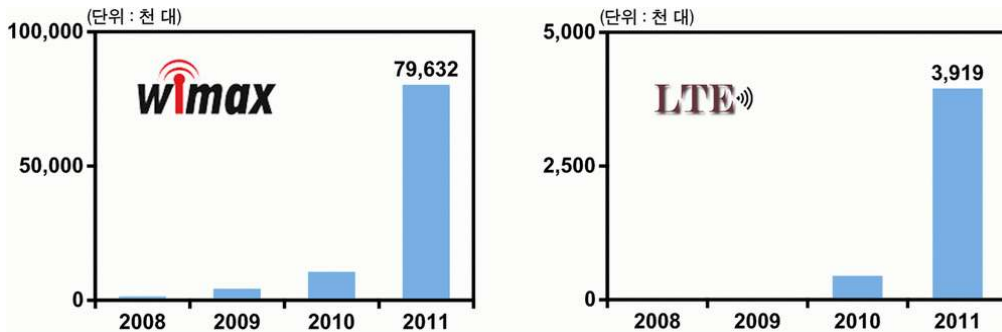
<자료>: IITA 정보서비스단, 2008.



## □ 4G 표준 주도권 경쟁 점화 : WiMAX vs. LTE

- LTE가 2010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2008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는 모바일 와이맥스가 초기 시장 선점에서는 다소 유리한 상황

〈 모바일 와이맥스 및 LTE 휴대폰 출하대수 전망 〉



〈자료〉: Gartner Dataquest, 2007. 12.

- 그러나 WCDMA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 대부분이 3GPP 진화 경로를 따라 4G 표준으로 LTE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 장기적으로는 LTE가 4G 표준의 대세가 될 전망
  - 모바일 와이맥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선통신 기술에서 진화한 기술이기 때문에 비록 상용화에서는 앞서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선택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
- 노키아를 비롯해 에릭슨·알카텔-루슨트·소니에릭슨·노키아지멘스·NEC·넥스트웨이브 등 유럽의 LTE 지지 업체들은 최근 LTE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LTE 플랫폼 기술을 타 업체에 라이선스하기로 결정
  - 이는 인텔의 모바일 와이맥스 진영과의 4G 표준 경쟁에서 더 많은 우호 세력을 확보해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의 일환

## □ 시사점

- 4G LTE 특허 라이선스 비용은 WCDMA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 국내 휴대폰 제조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
  - LTE 특허 라이선스 비용은 휴대폰 판매가격의 10% 이내, 노트북 대당 최대 10달러로 책정될 전망
  - 우리나라 업체들이 휴대폰 1대당 부담하고 있는 특허 로열티 비중은 GSM이 3%, CDMA가 5%, WCDMA가 10% 수준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
- 국내 업체들은 와이브로(와이맥스)뿐만 아니라 LTE 핵심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
  - 핵심 원천 기술/특허의 부재로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와이브로 R&D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,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LTE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